

〈한국서지〉 담화 구조와 프레임 연구

황인순*

— <차 례> —

1. 서론
2. 〈한국서지〉 목차의 담화
3. 〈한국서지〉 서문과 머리말의 담화
4. 구성된 한국성과 다층적 프레임
5. 결론-앞으로의 방향 및 가능성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서지〉의 담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총체적으로 ‘한국성’이라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삶이 지속되는 실제 공간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선을 통해 포착되는 것은 공간의 총체적 의미 중 일부이다. 담화 주체의 시각을 통해 기술된 담화는 ‘구성된’ 공간성, 즉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성된 정체성을 구축한다. 따라서 쿠랑의 시각, 즉 프레임을 통해 구성된 한국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담화 구조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쿠랑이 구성한 한국성이란 동아시아적 총체성 안에서의 한국성이라고도 보인다. 동아시아적 총체성을 상정하고, 일종의 번역으로 한국성을 인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쿠랑의 〈한국서지〉는 번역되고 혼종된 한국성이 드러나는 한국의 지형도로 읽혀질 수 있다.

주제어 한국서지, 모리스 쿠랑, 담화 구조, 한국성, 프레임

* 충북대학교 강사

1. 서론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는 1890년 한국을 방문한 모리스 쿠랑이 기술한 저서이다. 쿠랑 스스로 수집한 다양한 한국의 장서를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 것으로 1901년 마지막 권이 발간되었다. <한국서지>는 19세기 말 서양학자의 한국학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을 연구 주제로 삼았던 해당 시기의 대표적 연구자 중 하나인 쿠랑의 연구 성과를 밝힌다는 측면에서도, 쿠랑이 수집한 다양한 한국 고서적들의 문헌적 가치를 재구한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텍스트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¹⁾ 또한 쿠랑이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9세기 말의 고서적, 혹은 고소설 유통 과정을 밝히거나 해당 시기의 문화적 문학적 정체성을 재구하는 방식의 연구들은 분명히 유의미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졌으며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뿐 아니라 고소설, 시가 등 각각의 장르로 확장되기도 했다.²⁾ 그러나 아쉬운 것은

1) 다니엘 부세,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랑(上)』, 『동방학지』 51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153~194쪽, 다니엘 부세,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랑(下)』, 『동방학지』 52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83~121쪽;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교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동향』, 『국학연구』 2권, 국학연구소, 2003, pp.183~221 ;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29권, 2004, 215~247쪽; 이희재·이혜은, 『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고서의 현황과 활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235~251쪽 등이 한국학 연구의 문헌적 측면에서 해당 텍스트에 접근한 논문들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대영,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eéenne에서 나타나는 고지도 자료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제3권 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63~94쪽; 이상현, 『알렌 <백학선전>영역본 연구 -모리스 쿠랑의 고소설 비평을 통해 본 알렌 고소설영역본의 의미-』,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289~335쪽; 이상현, 『『삼국사기』에 세겨진 27년 전 서울의 추억-모리스 쿠랑과 한국의 고전세계』, 『국제어문』 59권, 국제어문학회, 2013;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

해당 텍스트를 하나의 독립된 담화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담화적 목소리에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서지>를 위시한 쿠랑의 다양한 텍스트 속에서 한국이라는 기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는 시각³⁾도 존재하며, 그만큼 쿠랑 스스로 중국 문화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의 종속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시각을 두드러지게 포착한 연구⁴⁾도 있다. 맥락에 따라 이러한 시각들은 충분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쿠랑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 안에 내재된 다층적 맥락들을 보다 세밀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서지>의 담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총체적으로 ‘한국성’이라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삶이 지속되는 실제 공간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선을 통해 포착되는 것은 공간의 총체적 의미 중 일부이다. 쿠랑의 시각을 통해 기술된 담화는 ‘구성된’ 공간성, 즉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성된 정체성을 구축하는 셈이다.⁵⁾ 쿠랑의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담화 구조를 통해 프레임과 시각을 구

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 59권, 한국비교문학회, 2013, 37~74쪽; 김승우, 『19세기말 프랑스인들의 한국시가 고찰』, 『은지논총』 28권, 은지학회, 2014, 275~311쪽 등을 참조하였다. 실제로 쿠랑에 대한 논문들은 이밖에도 다수 발견된다. 해외 소장서적의 범주 안에서 쿠랑의 『한국서지』 및 기타 저서를 다루거나, 『한국서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문학적 문화적 소통양상을 재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서지』를 문학적이거나 문헌적인 시각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 3) 프레데릭 불레데릭스, 이향·김정역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127~131쪽 참조.
- 4) 해당 연구는 중국문화에 대한 한국문화의 종속성만을 강조한 연구는 아니지만, 4장에서 언급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던대로 <한국서지>에 내재된 중국-한국의 대립적 가치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 59권, 한국비교문학회, 2013, 46~47쪽 참조.
- 5) 쿠랑의 시각이 ‘중국을 통해 한국을 본다’는 것이라는 부분은 이미 지적되었던 부분

축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서문에 쿠랑의 시선이 직접 드러나는 지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량적으로도 많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분석 영역이 충분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에 내재된 담화 주체의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상정하고, 해당 텍스트가 한국이라는 대상에 대한 구성되고 총체적 담화라는 점을 전제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1994년 번역된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를 활용할 것이다.⁶⁾

2. <한국서지> 목차의 담화

<한국서지>는 다양한 한국 문헌을 소개하기 위한 텍스트로 3800여권에 이르는 한국 서적들의 목록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 기술된 고서적들의 목록을 짚어가는 것은, 해당 시기 한국 문학 혹은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를 특정 대상을 기술하고 있는 일종의 담화 구조로 인식한다면, <한국서지>는 총체적 의미에서 ‘한국성’이 기술된 텍스트이기도 하다. 19세기 말, 쿠랑이 한국을 경험했다고 해도, 실재했던 19세기 말의 한국과, 쿠랑이 경험하고 재구한, <한국서지>에 기술된 형태의 한국은 동일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어느 한쪽이 완전한 거짓이라거나 굴절은 아니다. 다만, 실재하는 대상을 저자 스스로의 시각을 통해 해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인들에 관한 가치평가적 서술은 지속적으로 개입되어 있지만, 이처럼 단순히 서양연구자들이 지역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측면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쿠랑의 시선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과정 자체에 목적이 있다.

6)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이 해석의 틀로서 활용되는 것은 프레임이며, 프레임을 통해 구성되는 메타적인 틀을 담화 주체⁷⁾의 시각이라고 전제한다. 한국성이란 관념, 즉 정체성은 실제 세계의 공간성과 주체의 특정한 시각으로 구성된다. 실제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즉 기술의 대상이 될 총체적 세계이며 이 세계의 공간성 중 일부가 기술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프레임들이 내부에서 작동한다. 이와 같은 프레임과 시각을 통해 실제 세계가 기술될 때 기술 대상, 혹은 기술된 세계의 구성된 공간성, 즉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구성’되었다는 것은 모방이나 굴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선택이라 했다. 그러므로 <한국서지>에서 한국성이 어떠한 기술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인지하고, 기술하는 주체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한국서지>는 서적의 제목과 해당 서적의 형식적 구성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자료집이기 때문에 서적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된다. 물론 이 역시 담화 주체의 시각과 해석을 담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과 해석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체 서적의 구성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서문일수도 있다. 쿠랑의 <한국서지>에서 서문은 담화 주체인 쿠랑의 직접적인 기술이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중요하다. 더불어, 자료집의 구성 방식 역시 담화 주체의 시선을 담지한다. 따라서 서문과 목차를 살펴보는 것은 저자가 구축한 담화의 체계를 추측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보았다. 먼저 <한국서지>의 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모은 서적들을 ‘어떻게’ 배열했는지 담화 주체의 시각을 윤곽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7) 본고에서는 ‘담화 주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데 실제적 인물인 쿠랑과 텍스트를 기술한 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담론적 저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담론과 담화 사이에 발생할 의미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 ‘담화 주체’로 통일하기로 한다.

<한국서지>의 목차를 제시한 것이다.

I부 교회부	VI부 사서부
1장 교육류	1장 동사류
2장 간독류	2장 동잡적류
3장 입문류	3장 중사류
	4장 지리류
II부 언어부	
1장 한어류	VII부 기예부
2장 청어류	1장 산법류
3장 몽어류	2장 천문류
4장 왜어류	3장 술수류
5장 범어류	4장 병가류
	5장 의가류
III부 유교부	6장 농잡류
1장 경서류	7장 악보류
2장 성적류	8장 예술류
3장 유가류	
	VIII부 교문부
IV부 문목부	1장 도교류
1장 시가류	2장 불교류
2장 문집류	3장 천주교류
3장 전설류	4장 야소교류
4장 잡서류	
	IX부 교통부
V부 의범부	1장 조약류
1장 예의류	2장 무역류
2장 치리류	3장 신보류

<한국서지>는 1995년에 번역된 텍스트이므로, 목차의 용어들과 관련하여 번역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목차 각 장의 제목의 경우, 이미 원본에 쿠랑이 설정한 제목이 있다. 따라서 이는 번역자의 선택이 아니고 담화 주체가 선택한 용어이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쿠랑은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전체 텍스트를 기술했다. 그런데 제목과 관련해서만 프랑스어 이외에 한글과 한자⁸⁾로 이를 병기한다. 그러므로 선택된 번역어는 쿠랑의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이것이 단지 미묘한 의미의 누락 혹은 첨가라고 할지라도 그렇다.⁹⁾ 따라서 번역어와 원문을 함께 비교하며 목차의 구성을 살피고자 한다.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LIVRE I : ENSEIGNEMENT.

교 회 부 教 誨 部

CHAPITRE I : ÉDUCATION.

교 육 류 教 育 類

I. SYLLABAIRES CORÉENS.

목차의 처음부터 살펴보자면, 1부는 교회부(教誨部)라는 제목인데, 원

8) 이 지점에서 한글로 병기된 부분이 한국어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자어로 기술된 제목의 단순한 음독의 맥락인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보고 있다.

9) 용어이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정보의 누락 혹은 첨가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된 제목을 보고 추측하는 부분과 프랑스어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간격을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로는 *Enseignement*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로 교회부라고 병기되어 있다. *enseignement*이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따라서 1부 1장의 교육부*Education*과 겹침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1부는 언급한대로 교육서 관련 서적들을 분류한 부분이다. 1장은 문자교육에 관한 것, 2장은 간독류*Manuel epistolaire*로 편지글과 관련된 입문서들을 의미하는데, 목록을 참조한다면 서식이나 편지를 다루는 부분으로 보인다. 3장 입문류*Manuels divers*는 이밖의 입문서들이다. 1부는 그러므로 일종의 서식들을 다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에 눈에 띄는 의미 변동은 없다.

2부는 언어부*Etude des Langues*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어관련 서적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어*Langue Chinoise*, 청어*Langue Mantchoue*, 몽고어*Langue Mongole*, 왜어*Langue Japonese*, 범어*Langue Sanscrite*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부에서처럼 교육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해당 장들은 굳이 교육서란 표기 없이 각각의 언어들을 제목으로 쓰고 있다.

3부는 유교부이다. 1장은 사서삼경 등을 포함한 경서류*Livres canoniques et classiques*, 2장은 성인이 기술한 목록을 모은 성적류*Ouvrages sur Confucius*¹⁰⁾, 3장은 유가류*Philosophie classique*로 중국어본과 한국어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4부는 문목*Litterature*류로 문학을 소개한다. 이 부는 시가, 문집, 전설, 잡서의 네개 장으로 구분되는데 1장 시가 *Poesie*는 다시 1절 중국시가, 2절 한국에서 작성된 중국시, 3절 한국시로 나뉜다. 2장 문집류*Prose*는 완전한 문학의 형태를 띠지 않는 일련의 산

10) 경서류는 정전 혹은 고전이라는 의미이므로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성적류에서 성인은 Confucius, 즉 공자다. 해당 장은 공자의 업적*Ouvrages Confucius*을 모은 서적들로 보아야 한다.

문류로 보아야 할 것인데,¹¹⁾ 역시 1절 한문집, 2절 한국에서 작성된 한문집의 두개 절으로 구성된다. 3장 전설류*Romans*는 1절 중국 소설, 2절 한인이 지은 한자 소설, 3절 중국인을 다룬 한글 소설, 4절 한인을 다룬 한글 소설의 네 개의 절로 구성되며, 마지막 4장 잡서류*Oeuvres Diversites*는 절을 따로 나누지 않고 분류된다.

5부는 의범류*Moeurs et Coutumes*로 풍속과 관습에 관련된 주제이다. 1장의 레의*Rites*는 의례 관련(일반서, 의식, 관정의 다양한 레의, 국조 상례)이며 2장의 치리*Administration*는 행정과 정치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으로 1절 일반서, 2절 조령과 주의류 3절 조정, 의정부 등, 4절 이전·호전, 5절 예전, 6절 중국과의 관계 등, 7절 병전, 8절 형전, 9절 공전, 지방행정 등의 아홉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6부는 사서부*Histoire et Geographie*로 역사와 더불어 지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¹²⁾ 1장 동서류*Histoire de la Coree*는 한국역사 관련 서적으로 1절 일반역사, 2절 연표, 3절 보감류의 역사, 4절 왕실의 족보와 전기, 5절 개인 전기와 족보 6절 특수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2장 동잡적류*Documents Relatifs la coree*은 한국관련 문서를 모아둔 장인데, 1절 행정문서, 기록물 등, 2절 서지와 고고학, 3절 고문서학, 서예 등, 4절 시, 화 등, 5절 류서, 초록 의 다섯 개 절로 구성된다. 3장 중서류*Histoire de la Chine*는 중국역사 관련 서적으로 1절 일반역사와 연표,

11) 해당 항목은 대부분 ‘저자가 있는’ 문집류를 모은 것이다. 쿠랑이 2절을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한국 작품들은 모두 집, 고, 유고 등의 명칭을 쓰고 있다. 이들은 한국 문학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학자나 양반층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며 그들의 사상과 철학적 또는 다른 의미의 논쟁점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말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12) 이와 관련해서 서문에서 쿠랑은 “중국인들에게서나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도 지리는 역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기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순한 가지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순수한 지리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이다.” 라 지적한다.

2절 보감류의 역사, 3절 전기/특수사, 4절 류서/초록 의 네 개 절로 구성된다. 마지막 4장 지리류*Geographie*는 지리관련 저서로 1절 이정표/지도, 2절 기행과 교류(한국), 3절 기행과 교류(중국, 일본 등) 등 세 개의 절이다. 6부의 목차는 항목이나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것은 ‘동사류’와 ‘동잡적류’에서처럼 한국이 ‘동(쪽)’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¹³⁾ 원어로는 한국*Coree*로 표현되고 있는 이 용어는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동’으로 변형된다.

7부는 기예부*Sciences et Arts*로 과학, 기술류와 예술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1장은 산법류*Mathematiques*로 단일한 장이며 2장은 천문류*Astronomie et Cosmographie*로 1절 천문력/일월식의 측량 등, 2절 천문과 평면천체도 두 개의 절로 되어 있다. 3장은 술수류*Divination*인데 점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 장은 1절 점성술, 2절 풍수지리, 3절 괘 등에 관한 점, 4절 기타 예언 등에 이르는 네 개의 절로 구성된다. 4장은 병가류*Art Militaire*로 병서들이며 절 구분은 없다. 5장은 의가류*Medicine*로 의서들이며 1절 의학과 2절 수의학의 두 절로 분류된다. 6장은 농잠류*Agriculture et Sericiculture*로 농업과 양잠을 다루고 있으며 7장은 악보류*Musiques*로 역시 단일한 구성이다. 8장은 예술류*Dessin, Ornementation, Industries, etc*로 단순히 미술이나 회화 뿐 아니라 그림 및 공예품, 공산품까지도 다루고 있다.

8부인 교문부는 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서적들이다. 1장은 도교류*Taoisme*로 1절 경서류 2절 관성제군, 문창제군, 부우제군에 대한 숭배의식 3절 기타 저술의 세 개의 절로 나뉜다. 2장은 불교류*Bouddhisme*로 1절 경전(sūtra), 2절 기원문/의식, 3절 교화력사/장소(ÇĀSTRA), 4절 기도문과 찬가로 구성된다. 3장은 천주교*Catholicisme*류로 1절 일반서, 2절

13) 참고로 중국은 ‘중(中)’으로 표상된다.

성사/ 예수의 생애, 성자들의 생애, 3절 칠성사에 관한 것, 4절 다양한 종교관계문제, 5절 기도서, 6절 조선과 일본의 교회사의 6절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4장의 야소교류*Protestantisme*는 크리스티교 관련 서적으로 단일 장이다.

전체의 마지막인 교통부*Relations Internationales*는 국제관계 관련 서적이다. 1장 조약류와 2장 무역류, 3장 신보류 모두 단일 장이며 매우 분량이 짧다.

목차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담화 주체가 선택한 프랑수아어와 번역어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균열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담화 주체의 인식 체계나 개념에 관한 범주를 추측할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동사류’와 ‘동잡적류’에서 ‘한국’이 아니라 ‘동(쪽)’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한국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부분이며 언어에 따라 다르게 기술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원어로는 한국*Coree*로 표현되고 있는 이 용어는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동’으로 변형된다. 프랑수아어로 해당 텍스트를 읽어내려가는 경우 해당 장은 한국사와 한국문서류로 해석되지만, 한자어나 한글을 읽어 내려가는 경우는 동쪽 나라의 역사와 동쪽나라의 문서류로 해독된다. 이는 명확하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다만 담화 주체가 한국이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개념과 동쪽나라라는 상대적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담화 주체의 프레임이 완벽히 일관되거나 고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제별로 분류된 해당 항목들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어느정도 인지도 확인가능하다. 예를 들어 7장 악보류*Musiques*의 경우, 원어를 볼 때는 음악 전반적 항목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서적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악보들로, 이는 관련된 ‘음악이론’서나, ‘학습서’를 찾기

는 어려웠음을 추측하게 한다.¹⁴⁾ 또한 전설을 *romans*으로 표기한 것도 살펴볼만한 지점이다. *romans*은 보통 소설로 해석되며, 해당 장의 내용 역시 소설을 아우르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의 전설, 민담, 혹은 잡설과 소설이라는 개념이 담화 주체 내에서 완전히 분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서지>의 목차는 정보획득의 지형 혹은 서적의 지형을 윤곽화한다. 이는 “프랑스인에 의한 최초의 주제분류”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 다양한 한국학 저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콜레주 드 프랑스 도서관의 장서 분류개념 역시 이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⁵⁾ <한국서지>는 일반교육, 외국어, 사상, 문학, 풍속, 역사지리, 과학과 예술, 종교, 국제관계에 이르는 아홉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적을 9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각 부를 장으로 나눈 항목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어느 부분 이상 담화 주체의 선택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제분류가 쿠랑 자신의 창조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한국 서적을 통해 구성된 한국 문화의 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식이라 믿어 선택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 분류는 읽을 수 있는 계층, 즉 독자가 얻기를 원하는 정보들 혹은 한국적 사상의 수요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교육서나 외국어, 유교 등과 관련된 전

14) 이는 당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사자료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쿠랑이 구성하는 체계의 구성항목이다. 쿠랑이 수행한 현지 조사의 불완전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서지>를 구성된 담화로 보는 시각에서 강조해야 할 항목인 것이다.

15) 콜레주 드 프랑스 소장 장서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단순히 하나만은 아닌데, ‘동양의 전통적인’ 사부분류법을 활용한 분류와 쿠랑의 주제 분류는 구분되는 작업으로 인식된다. 이는 쿠랑이 가진 특정한 프레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희재·이혜은, 『콜레주 드 프랑스 소장 한국고서의 현황과 활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45,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241~242쪽 참조.

달된 목적을 가진 서적 목록을 가장 앞쪽에 배치했고 문학과 같은 향유하는 서적들은 중간에, 실용서는 뒤에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문학과 관련된 서적, 유교와 관련된 서적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분화된다. 반면, 국제관계 관련 서적의 경우 세장의 분량을 다 합쳐도 문학과 관련된 서적의 한 장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적은 양이다.

특히 담화 주체의 자의적 구성이 나타나는 것은 장 이외에 절의 구성이다. 장을 다시 절로 구성한 것은 모든 장에 해당되는 구성은 아니고 일부의 장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주관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복합적인 절 구성이 나타나는 것은 문학 분야라 볼 수 있다. 4부 문목부의 장, 절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IV부 문목부

1장 시가류

1절 중국시가

2절 한국에서 작성된 중국시

3절 한국시

2장 문집류

1절 한문집

2절 한국에서 작성된 한문집

3장 전설류

1절 중국 소설

2절 한인이 지은 한자 소설

3절 중국인을 다룬 한글 소설

4절 한인을 다룬 한글 소설

4장 잡서류

이중 소설에 해당하는 3장 전설류를 중심으로 목차 구성을 보다 면밀

히 살피기로 한다. 각절은 중국소설, 한인이 지은 한자 소설, 중국인을 다룬 한글 소설, 한인을 다룬 한글소설로 구분된다. 이는 두가지 구분 기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한 언어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나뉘며 한자의 경우 중국인이 기술했는지 혹은 한국인이 기술했는지를 밝히고, 한글의 경우는 한국인이 기술했다고 전제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이 기술한 한글 소설을 다시 등장하는 인물의 국적 혹은 배경에 따라 중국인이 등장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가류나 산문류에서도 유사한 분류기준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한국 문학 텍스트에서 중국어, 즉 한문 텍스트는 적지 않으며 특정 판본을 한글본과 한문본으로 나누는 분류도 낫설지는 않다. 그러므로 중국어와 고유어인 한국어로 기술된 텍스트를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류라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국어 소설을 등장인물의 국적에 따라 중국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는 것은 재고할만한 부분이다. 중국의 배경과 인물을 완전히 참조했거나, 중국을 아예 배경으로 삼았는지 혹은 이것이 고유한 배경과 인물로 변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는 중국의 이야기, 혹은 중국적 세계관이 얼마나 텍스트에 투영되어 있는가, 혹은 변형되고 있는가의 기준에 따라 소설을 분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문학’을 보는 데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담화 주체 고유의 관점이 제시된 부분인 셈이다.

시가의 경우에도 소설과 비슷한 분류체계를 볼 수 있다. 중국시가, 한국에서 작성된 중국시, 한국시의 3절로 구분되는 이 체계는 전설류, 즉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된 언어가 중국어인가 한국어인가를 구분하고, 중국어라면 창작자가 한국인인지의 여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가의 경우에는 기술되는 창작물 ‘내부’에서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드물기 때문에 소설에서와 같이 내용과 관련한 분류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목차의 구성에서 ‘중국성’과의 연관관계가 한국문학을 구별

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추측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처럼 담화 주체의 시각은 목차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추출 가능하지만 서문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서문의 담화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3. <한국서지> 서문과 머리말의 담화

내가 오늘날 공개하는 이 저술에서 나는 1)그 외형과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의 도서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적으로 무지한 분야이므로 2)순수한 서지적 연구는 매우 간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도서의 외형적 서술 없이 각 저술에 대한 분석은 명확성에서나 흥미 면에서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분리시키는 것조차 어려운 듯 보여졌다. 더욱이 나는 이 나라의 지리, 역사, 풍속, 엄밀한 의미로의 문학, 철학 등에 대한 정보들을 많은 분량의 해제 속에 수록해야 하는데 이르렀는데, 이 정보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기에 잘못 기재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3)또한 오랫동안 유럽의 관심밖에 놓여있던 이 반도는 이즈음 실로 본의 아니게 내부의 문제 및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들로 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을 다 훑어본 후에는 이 나라가 극동의 문화 내에서 맡은 매우 특별한 역할로 인해 또 다른 종류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서지> 머리말 중에서¹⁶⁾

이상은 쿠랑이 <한국서지> 머리말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쿠랑이 서문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핵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쿠랑의 <한국서지> 기술 목적은 우선 한국의 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였다.

16) 모리스 쿠랑(1994), 위의 책, p.xi

이는 <한국서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쿠랑은 매우 성실한 서적 소개를 통해 기술 목적을 이루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쿠랑은 도서의 외형적, 내용적 측면을 서술하고 지리, 역사, 풍속, 문학, 철학 등에 대한 정보들 역시 수록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나라, 즉 한국이 극동의 문화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서문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담화들은 쿠랑이 기술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을 함축하고 있는 형태들이다. 서지를 쓴다는 목적에는 이미, 가치관을 구축하는 질료들을 통해 그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각이 내재된 것일 수 있다. 우선 서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서문은 크게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장터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한국 책들의 전체적인 크기와 인쇄형태를 묘사한다. 이밖에 책방의 위치와 판매 과정을 언급하며 자신의 장서목록, 서술 분석, 저작간행 상황, 저자의 생애 중요한 사건 등을 기술한다. 또한 자신이 영향받은 책들의 목록과 내력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이름에서 성과 이름을 구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한국의 왕조명과 연도 사용, 연호 사용 등을 기술한다.

두 번째 절에서 내용은 확연하게 변화되지 않는다. 저자가 이를 기술하기 위해 형태적인 면의 도서, 사용 언어, 제시된 사상이라는 세가지 관점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부분이 서두에 나와 있지만, 이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종이를 기술하고, 제본과 인쇄술, 활자본과 목판본, 활자인쇄의 종류, 필사본의 역할, 도판본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절에서는 한글 자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한자와 한글의 표기법을 기술하고 한국에서의 한자 도입과

사용 기록을 한국 고대사와 연결하여 자세히 기술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적 가치를 질문하기도 한다. 한자 표기의 방식과 형태 및 이두를 설명하고 한글 구성체계와 한국어와 중국어 연관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네 번째 절에서는 문학에서의 중국모방 양상을 지적한다.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종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을 하고 어떠한 외래종교들이 한국에 전래되었는지 살피고 있다.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는 한국의 유교를 들고 있으며 이를 매우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번째 절에서도 역시 한국의 유교를 다시 강조한다. 저자는 이를 글쓰는 기술의 원천, 즉 글쓰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 소설 등과 같은 장르론을 기술하고 의례, 행정과 유교와의 관계, 역사서 지리서 등의 실용서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절에서는 특별히 대중문학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저자는 소설, 노래와 번역 등을 들고 있는데, 기존에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텍스트나 저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주목의 당위로 강조하고 있다.

서문은 <한국서지>의 서문이므로 이처럼 앞으로 소개하게 될 책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사이에 관련된 한국에 대한 기술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몇가지 부분들은 책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나, 사실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이 기술된 부분도 있다. 목차에서는 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만을 제시하므로, 텍스트의 목적인 서적 분류가 아닌 다른 한국에 대한 묘사가 개입될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서문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그밖의 기술들이 개입될 여지가 점차 커진다. 따라서 서문에서 서적과 관련하여 확장되어 기술된, 혹은 연관관계가 떨어지지만 ‘한국’에 관련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삽입되어 있

는 지점들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이나 시골의 꼬불꼬불하고 더러운 골목길과 먼지나는 장터들에는 조잡한 차일로 햇빛만을 피한 채 노천에 작은 상품진열대들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등 위로 길게 머리를 뚫아내린 젊은이가 생삼베 옷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동곳과 비녀, 망건, 손거울, 담배쌈지와 담배, 일반적인 담뱃대, 각종 껌, 일본 성냥, 붓, 먹, 종이 그리고 책들을 팔고 있다. 이러한 잡다한 상품들은 길가에 크게 개방된 질이 조금 나은 전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진열대는 땅으로부터 약 한자 반, 또는 두 자정도 올라와 길가까지 펼쳐진 완만한 경사의 마루판대기 위에 놓여졌다. 망건 쓴 상투머리에 동곳을 꽂은 성인 남자인 상인은 그의 누추한 거처로 들어가는 문 옆의 바닥에 앉아 있다.(p.1)

부처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전에 숭상되는 신령들과 섞여버리거나 혼동되어 이들 모두 비슷하게 실질적인 예식이나 약간의 숭배를 받을 뿐이다. 말하자면 그저 보편적으로 가호와 부와 번영, 한마디로 이승과 저승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 향축 몇 개, 쌀 몇 사발, 몇 차례의 무릎 꿇는 절이나 하면 되는 것이다.(p.42)

이웃 아낙네들과 실컷 수다를 떨고 온 후 한가한 긴 시간동안 부인네들이 집안 구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객을 기다리며 상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주 찾아오는 쉬는 날에 노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p.69)

첫 번째 부부는 <한국서지> 서문의 시작 지점으로, 한국 장터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담화들 역시, 부처와 관련된 민간 풍습이라거나 일반 대중들의 여가를 간략한 필치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한국서지>에서 기술되고 있는 대상은 단순히 한국서적들의 내용적이고 형식적인 구성뿐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의미의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쿠랑이 일종의 관찰

자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서지>에서 스케치적인 담화의 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쿠량은 서지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기술하거나, 서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설명적인 어조를 활용한다.¹⁷⁾ 그러나 해당 시기의 서적 이외의 것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서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풍경들을 언급하면서, 고서의 내용 이외에도 서적들이 창작되고 향유되고 있는 콘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변적인 것에 대한 기술을 통해 중심에 있는 것을 보다 예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스케치적 시선, 혹은 관찰자적 시선에 바탕한 기술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관찰자적 시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담화 주체로서의 쿠량이 스스로의 위치를 어느 지점에 두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쿠량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관찰하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때로는 가치평가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공간 개념 '내부'에 위치한 시선으로 공간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특정한 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레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을 통해 한국성이 구축되는 과정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17) "그렇게도 상반된 두 개의 고유언어가 그렇게도 친밀하게 통합될 수 있었다는 사실, 문학어에 있어서 중국어가 한국어를 대치한 것이 더 자연스러웠었다는 사실이 기이하게만 여겨진다.(38쪽)"나 "그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기보다 상징되어 지지만, 그것들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가장 깊고 내면적인 사상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다. (p.54)" 등에서 나타나는 어조는 위에서와는 다르다.

4. 구성된 한국성과 다층적 프레임

담화 기술의 양상을 살펴보면 담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되풀이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서지>는 한국 서적에 관련된 총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에서 나아가 이를 통해 보다 총체적인 ‘한국성’을 구성하는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어떠한 프레임들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듯이 서문과 목차에서 드러나는 몇가지 프레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중국성-한국성의 프레임이다. 해당 프레임은 가장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메타틀을 구성한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성과 한국성이 대립되며, 각각의 항목에 부수적인 항목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중국성을 아우르는 한 축과 한국성을 아우르는 한 축이 만들어진다고만 파악하기에는 보다 복잡한 지점들이 담화에서 발견된다. 이 장에서는 중국성과 한국성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세부 프레임들이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 중국성-한국성 프레임

<한국서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프레임은 중국성의 프레임이다. 중국성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성을 인지하려는 시각이다. <한국서지>의 가장 지배적인 프레임 중 하나과 이와 같은 중국성의 프레임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¹⁸⁾, 가장 포괄적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18)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 59권, 한국비교문학회, 2013, 46~47쪽.

와 같은 중국성의 프레임은 한국성과 대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⁹⁾ 이는 앞서 목차에서 살펴본 문학의 분류체계를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 전설류

1절 중국 소설

2절 한인이 지은 한자 소설

3절 중국인을 다룬 한글 소설

4절 한인을 다룬 한글 소설

전설류, 즉 소설을 구분할 때 사용된 언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도 있지만, 소재나 주제별 분류를 배제하고 등장인물이 중국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이를 변형하면 각각, 중국인이 기술한 중국 배경의 소설,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기술한 중국어 소설, 중국인이 등장하는 한글 소설,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는 소설이 된다.

분류기준	기술 언어 및 주체	기술대상
항목	중국어	(중국인)
	비-중국어=한국어	중국인
		비-중국인=한국인

19) 굳이 해당 항목에서 중국-한국이 아니라 중국성(性)-한국성(性)이라는 가치 대립을 설정한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실제적인 의미의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그 성향이나 경향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목차 부분에서는 중국이 다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같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그러나 프레임이 확장되면서 이 외연 역시 확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용어를 설정하였다.

해당 목차는 기술된 언어와 기술된 대상이라는 두가지 분류기준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어로 기술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중국어가 아니라면 중국인이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성이라는 프레임이 해당 목차를 구성하는 기준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담화 주체가 한국성을 기술하는 데에 있어 중국성과의 관계 맺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소재나 주제, 혹은 인쇄 양식 등으로 한국소설을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기준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추가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이때 활용되는 중국성의 프레임이 어떤 층위에 놓이는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활용한 것이 중국 언어 기술 여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으로 사용된 것은 언어적인 측면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굳이 인물의 국적을 분류에 활용한 것은, 인물의 국적 이외에 다른 이야기 구조 자체는 크게 차이를 찾지 어렵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⁰⁾ 등장인물의 국적이 중국인지 한국인지의 문제는 두 부류의 이야기를 구별해내는 데에 불충분한 기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랑이 굳이 이를 활용한 것은, 중국소설과 한국소설이 설사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더라도 등장인물을 한국화했다면 그것 자체를 일종의 문학적 변형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서문에서 한국문학이 중국문학의 전적인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문학의 개별성을 완전

20) 이와 관련된 쿠랑의 서술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의 대부분은 한글로 쓰여 있으며 저자명을 밝히는 법이 없고 연대표시가 있는 것도 드물다. 일부는 중국 것을 번역했거나 모방한 것이고 일부는 창작인데, 중국과 한국 역사상 알려진 사건을 담고 있거나, 역사에 근거를 두지 않고 상상력에 의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상상력에 의한 작품 가운데도 대개의 경우 그 줄거리가 중국을 담고 있어 한국인들 정신에 미친 이들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라 하겠다.”(70쪽)

히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문학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담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명과 인명에서나 마찬가지로 년대 또한 정확성의 결여와 명확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멋을 추구하는 이유로 해서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인은 중국인들로 부터 10간(천간)과 12지(지지)로 배열된 간지를 빌어와 방위(동서남북과 그 중간위치) 및 시, 일, 월, 년을 지칭하는데 사용했다. (8쪽)

한국의 관판과 많은 사판은 중국의 연호를 쓰고 있는데 이 연대표기는 매우 정확하다. 그러나 한국은 1637년부터 만주의 중주권을 인정하여 청의 연호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키지 않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이 의무에 순응했다.(9쪽)

표의문자로 한국어에 침투한 중국적 요소는 그 면모까지 변형시킨 통속적인 언어에 까지 뻗었다. 그렇게도 상반된 두 개의 고유언어가 그렇게도 친밀하게 통합될 수 있었다는 사실, 문학어에 있어서 중국어가 한국어를 대치한 것이 더 자연스러웠었다는 사실이 기이하게만 여겨진다. 한국어의 현저한 특징은 동사이다.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유럽인은 다만 동사는 상태 또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생각만 가진 채 동사 단어의 의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이 언어의 본성은, 따라서, 그 구조가 매우 불어에 가깝지만 모든 동사 변화 모든 음성 변화를 무시하는 중국어의 그것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중국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빌어 왔다.(38쪽)

이상의 부분을 보면 쿠량은 지속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즉, 이상의 기술 속에서 파악되는 시각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호 영향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성이 일방향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는 것이다. 문학, 연호, 한국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그의 담화는, 따라서 영향을 주는 가치와 받는 가치로서 중국성과 대립의 축에 한국성을 놓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로부터 간지를 빌어왔지만 다소 애매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연호를 쓰기로 한 한국인이 이를 불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빌어왔지만 본성적으로는 중국어와 완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개별적인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향을 주는 가치와 받는 가치로서 규정된 중국성과 한국성의 대립 양상이 담화의 어떤 지점에서는 이미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대립된 중국성과 한국성이라는 가치대립이 담화내부에서 변형되며 약화된다는 것은 그 두 프레임이 고착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중국성-한국성 프레임의 확장

이와 같은 중국성-한국성 프레임이 <한국서지>에서 제시된 가장 주요한 담화적 프레임 중 하나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연관성, 혹은 종속성을 지적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중국성-한국성 프레임은 대립의 큰 축을 이루면서 텍스트 내에서 제시되는 미시적 프레임들을 중국성의 축과 한국성의 축으로 모아간다. 그 과정에서 중국성은 단순히 한국성의 근원이라거나, 한국성이 중국성을 계승한 것이라거나와 같은 일관되고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보다 분화된 시각들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미시적 프레임과 시각들은 텍스트 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떠올랐다 사라지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중국성-한국성 프레임은 텍스트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한국의 문화지형에 중국이 끼친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 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은 한국 문화에 있어서 유교의 영향력이다. 쿠랑은 ‘중국 정신’의 집약으로 유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서문에서 유교 사상이 한국 지성사의 근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서적 기술의 정신적 부분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유교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단지 도덕, 형이상학, 의례뿐 만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소고, 서간문, 보고서, 의례서, 축원문및 기타 발문, 서문, 헌사등에도 전개되고 부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저술들은, 한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지류 중 하나인 유명한 선비들의 모든 문집의 4분의 3을 점하고 있다. 덜 독단적이고 보다 단장된 형태로 효, 충, 정의, 겸양, 용기 등의 중국의 도덕적 교훈은, 채택된 사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저술 안에 있는 각 문구에 마다 실려 있다. 흔히 그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설명되기보다 상징되어 지지만, 그것들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가장 깊고 내면적인 사상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그곳에서 기독교적인 영감을 빼고서는 중세와 17C의 우리들의 문학을 논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도덕적 사상은 글쓰는 기술의 중요한 원천이다. 문체와 문학적 가치는 사상이라는 정통성에 종속되는 것이며 현명한 학자의 위상은 언제나 훌륭한 문인들 위에 놓였다.(54~55쪽)

위의 서술은 유교가 한국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강조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쿠랑이 유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교가 한국 문화 속 모든 저술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교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쿠랑은 간과하지 않는데, 이는 일종의 대중문학이라는 개념으로 기술

된다. 유교적 사상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민간의 기술들이 분명 존재한다. 이를 향유하는 계층은 관리, 양반과는 구별되는 ‘대중’으로 인식된다.

그때부터 유교의 운명은 보장되었다. 공자의 사당과 향교에서 주어지는 공식적인 교육 덕분에 그것은 언제나 발전일로에 있었다.....유교는 그 때부터 관리, 양반, 국왕에 의해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양반들은 자신들을 일반 민중과 구별하기 위해 유교를 택한 것이지만, 중국의 교훈에 깊숙이 빠져들어 학자로서의 학문이 그들의 계급제도에서 가장 빛나는 특성과 현저한 표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p.49)

또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에게 유교는 그토록 편협했던 데 반해 국민들이나 조정에 있어서는 그렇지도 않았다. 거기서는 민족의 실질적인 정신이 지배하여 도덕적 규범은 흔히 인간 본능의 밑바닥에 나쁘게 감추어진 허식일 뿐이었다.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미신이 그 저변에 있어 누구나 가능하면 더 많은 신성들과 관계를 갖아야겠다고²¹⁾ 생각했으므로 불교, 도교 및 조상숭배 등이 공평하게 행해졌다.(p.46)

이제 학자와 역관, 양반이나 반양반, 공부한 사람, 관리이거나 관리가 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대중 문학에 대해 언급할 일이 남았다. 우선 이야기 책을 들 수 있는데 중인계급조차도 이런 류의 소설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남에게 보인다면 얼굴이 붉어질 일이다. 그러나 한문체는 그것을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진지한 내용의 저술들은 의례, 고사, 행정관계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는 것들이다. 이웃 아낙네들과 실컷 수다를 떨고 온 후 한가한 긴 시간동안 부인네들이 집안 구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객을 기다리며 상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주 찾아오는 쉬는 날에 노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들 중에 한자를 아

21) 가져야겠다는 오류인 듯 보이나 원문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는 사람은 거의 없고, 따라서 조리 있는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이야기책은 이들을 확실한 독자층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69쪽)

이야기에 나오는 장소야 어찌 되었건 이들 저술들의 공통적인 면은 매우 많이 명백히 나타난다. 성격의 연구는 전혀 없고 등장인물들은 언제나 똑같은 급제하는 선비나 적을 무찌르는 젊은 용사, 신체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젊은 여성, 젊은이들의 행복을 반대하는 아버지, 젊은 처녀를 탐내다 그 모략이 탄로나는 사악한 양반, 자비로운 고관, 전술과 비술에 능통한 승려 등 도처에 같은 유형이 발견되어 곧 오랜 지기처럼 되어 버린다. 줄거리도 단순하여, 젊은이들이 결혼에 도달하는 이야기나 오랫동안 잃어 버렸던 자식을 찾는 이야기이며, 많은 사건이 쌓여 전쟁, 유괴, 파선, 꿈, 기적, 모략, 유배 등이 설새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유일한 관심사는 복잡다단한 이 얽힘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투른 그 결말에서 흔히 실망하게 된다.(70쪽)

이상이 대중문학과 관련된 6장의 기술 중 일부이다. 마지막 부분의 “성격의 연구는 전혀 없고 등장인물들은 언제나 똑같”다는 기술을 볼 때 쿠랑이 한국 대중문학의 완성도를 매우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의 기술에서 쿠랑은 대중들이 여가시간에 딱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면서 대중문학의 존재 의의에 동의한다. 동시에 “유교는 학자들과 대중을 구별하는 자신들만의 기제”, “민족의 실질적인 정신은 다른 곳에 있다”, “학자들과 공부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중문학”과 같은 표현을 통해 대중문학을 학술서를 위시한 유교적 서적의 대립적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유교성’은 ‘유교적으로 기술된 기술물’이며 이와 대립되는 것은 대중문학이다. 결국 관(官)-담화와 대중-담화가 유교-대중문학이란 관점에서 대

립되는 구조이다. 공식적인 형태의 문서, 혹은 관(官)에 의해 전달되는 학문 등은 유교적 사상에 기반하여 기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는 불교나 민간신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기술된다. 대중문학의 근간에 불교나 민간신앙이 배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교성과 불교나 민간신앙이 대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래의 부분들이다. 한국의 사상을 기술한 서문의 4절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불교에서 온 이와 같은 사상은, 관(官)적 담화가 아니라 이와 대비되는 옛 이야기와 소설의 근간이란 점을 지적한다. 유교사상에 기반하여 기술된 서적들과 대중문학 서적들 간에는 사상적 측면, 소비의 대상이라는 측면 등 구별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43쪽. 미래의 선행에 대한 포상과 악행에 대한 지옥사상은 한국에서는 순전히 불교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론 매우 재미있는 설정을 보여주는 옛 이야기나 소설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47쪽. 그러나 유교의 이러한 발전은 순전히 표면상의 행정적인 것이었으며 국민의 풍속 속에 침투되지는 못했다. 그들은 오랜 관습을 따랐으며 오직 불교에만 귀의하고 있었다. 국왕들조차도 중국적 교리에 따른 간헐적인 보호를 행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불서를 간행케 하면서 인도의 종교를 추종했고 사찰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승려들로 하여금 항상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다.

43쪽. 부처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전에 숭상되는 신령들과 섞여 버리거나 혼동되어 이들 모두 비슷하게 실질적인 예식이나 약간의 숭배를 받을 뿐이다. 말하자면 그저 보편적으로 가호와 부와 번영, 한마디로 이승과 저승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 향축 몇 개, 쌀 몇 사발, 몇 차례의 무릎 꿇는 절이나 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에는 깊은 신심은 필요없고 가능한

한 변제불능의 채무자 정도로 신령들 중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 지점에서 ‘유교성’은 ‘공적이고 행정적인 근간사상’이며, 자생적으로 변형된 불교나 민간사상과 대립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일련의 연결관계를 찾을 수 있겠다. 중국적인 것은 유교적인 것과 연결되며 이는 관(官)적 담화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며 공적 사상이다. 한국적인 것은 비유교적인 것과 연결되며 이는 대중적 담화와 연결되며 민간 사상과 연결되는 프레임처럼 보인다. 실제 쿠랑의 서문에서 이와 같은 프레임들이 연결되면서 일관성 있는 서술의 양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유교를 기술한 담화 중 다음의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3쪽)그들 중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받아들이 교훈에 잘 동화하고, 배운 사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이를 철저히 실행에 옮긴 후, 중국인도 알지 못한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들의 이론과 신념에의 한국 현인들의 헌신은, 중국 현인들과 나란히 명예스런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교라는 종교를 창조했으며, 몇 사람은 그것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했다.

이를 보면 유교가 단순히 중국성과 연결된다고만 하기 어렵다. 물론 유교가 한국성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유교는 한국적으로 혼종된 중국성의 상징처럼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유교와 대립되는 것은 오히려 순정한 중국성이나 순정한 한국성이 될 것이다. 유교 프레임을 중국 프레임에 완전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구별해서 서술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성-유교-관(官)적 담화-공적 사상으로 연결되던 한 축은, 유교를 기술하는 프레임이 위치를 이동하면서 재구성될 당위를 얻게 된다. 이 지점에서 사실 유교는 한국적으로 변형된

대상이므로 한국성의 축에 가깝게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동으로 인해 한국성-비유교-대중적 담화-민간 신앙으로 연결되는 반대의 축의 관계망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이미 이를 지지하는 담화들이 양적으로 많다.

따라서 쿠랑이 한국성을 중국성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다거나 혹은 반대로 쿠랑이 한국성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였다거나와 같은 주장 중 단 순히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담화 내부에서 담화 주체 스스로도 그 두가지의 입장을 모두 드러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특정한 시각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보다는 두가지 이상의 프레임이 혼합된 일종의 시각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총체적 한국이라는 실재 공간에서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존재하는 프레임들이 이를 기술하려는 담화 주체의 내부에 투영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혼합되고 변형되며 담화를 구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혼종과 혼합의 양상이 담화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역으로 거슬러 온다면 이 양상은 19세기 말 한국이라는 실재 공간에서 나타나는 혼종과 번역의 양상을 닮아 있는 것이다.

3) 혼종과 번역의 프레임

다음은 쿠랑이 지적인 혼종성의 양상들이다. 중국성이 한국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이것이 한국적으로 변용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적인 것, 그리고 한국적인 고유의 것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혼종되고 변형되며 이를 통해 한국성이라는 개별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따라서 기존의 중국성-한국성 프레임과 각각의 축을 구성하던 세부 프레임들은 뒤섞이

며 더 이상 대립적인 것만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중국인은 각 글자의 음을 나타난 그대로 똑똑히 읽으며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은 절대 발음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쓰지 않는 많은 語尾를 본문에 첨가하며 중국발음 대신 순수한 일본어로 대치하며 그들 언어의 구조에 일치하도록 흔히 단어의 순서를 도치시킨다. 한국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글자를 읽되 익숙하지 않은 귀로 들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중국발음과 비슷하게 발음을 한다. 그러나 본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둘, 셋, 넷으로 이합된 음절들로 중간 중간에 사이를 떼고 있다(30쪽)

공적인 의례서가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 규칙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인 차이점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행정은 당, 송, 명의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으면서도 지리적, 경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그것들과는 별개의 것이 되었다. 어떠한 중국의 행정서도 반도에서 재인쇄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한국의 저술이 중국의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59쪽)

이상의 기술들은 중국성과 한국성이 대립적이지만, 결국은 혼종적으로 작용하여 또다른 한국성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립적 중국성-한국성의 프레임은 재구된 한국성의 프레임에 융합된다. 이러한 프레임은 학습이나 번역이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성과 한국성이 융합되는 과정을 ‘학습’이나 ‘번역’의 맥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일관성있는 공식적 교육에 의해 주입된 중국의 유교 사상이 민간의 풍습에 적용되거나, 한국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교라는 종교를 창조”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이를 함축한다. 유교란 중국성 프레임을 대표하는 개념이자 동시에 중국성 한국성 프레임이 혼종된 개념으로도 기술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끌고 유지시켜온 많은 중국책들을 읽고, 베끼고, 재인쇄하

고, 재독하고, 연구하기 때문에(41쪽)”와 같은 부분도 유교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형 및 자생성이 독립된 것임을 보여준다.

목차를 보면, 1부는 교화부이다. 이는 2부의 언어부, 그리고 유교부와 연결되어 학습적인 맥락을 구성하며, 유교부에서 문목부로 넘어가는 지점에 이르러서 그 이후의 항목들은 비교적 변형되고 자생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²²⁾ 또한 그 변형과 혼합의 양상이 비교적 강력한 문목부의 목차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서지의 소개와 관련해서도 그 줄거리를 길게 서술하는 등 분량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은, 학습과 번역이란 맥락에서 구성되고 있는 한국성의 의미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쿠랑의 중국성-학습, 한국성-자생의 개념이 단순한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거나 차용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성이라는 프레임이 공적 담화, 유교적 사상, 학습된 대상과 같은 의미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변형, 번역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한국성이 재구성될 때, 이 대립은 단순히 우등과 열등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이는 쿠랑이 사용한 최종적 프레임이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쿠랑이라는 담화 주체의 시각을 구성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층적인 프레임이며, 이들이 뒤섞이며 <한국서지>의 시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목차와 서문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담화구조를 분석한 것은 이러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중심이 되는 것은 한국의 고서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된 주변적 담화를 통해 한국성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담화적 목소리를 확대하고자 했다.²³⁾ <한국

22) 담화 주체로서의 쿠랑의 이와 같은 구성이 의도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미 구성된 담론의 체계를 통해 이와 같은 목소리를 추출하는 것은 가능한 작업이라 본다.

서지>에서 드러난 쿠랑의 시선은 오히려 머뭇거리는 시선이다. 머뭇거리는 시선은 관찰자의 시선, 혹은 관조적인 시선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변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역동적일 수도 있다.

5. 결론-앞으로의 방향 및 가능성

모리스 쿠랑은 19세기 말의 한국을 관찰하며 중국성과 한국성이 대립되며 이것이 번역되고 혼종되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 기술한다. 쿠랑은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계속 유지하는데, 중국 프레임과, 이방인으로서의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는 기술된 내용들을 일종의 풍경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그 과정에서 쿠랑의 시각은 오히려 일종의 객관적 시선으로 정렬될 수 있다. 완전한 여행기라기에도 어렵고, 단순히 서적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연구서라고 하기에에도 어려운 해당 텍스트는 그 자체로 혼종적 담화를 유지하면서 주제와 담화적 측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서지>의 분석은 단순히 한국의 정체성을 실제로 재구하는 것 뿐 아니라 해당 공간을 인식하는 연구자들의 정체성을 지적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이는 담화 주체로서 쿠랑의 관찰자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즉, 세계를 바라보는 데에는 ‘안’과 ‘밖’의 개념이 작용한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안’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밖’으로 상정할 수도 있

23) 본고에서 지적한 프레임들이 <한국서지>의 본문, 즉 텍스트의 정보들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해당 프레임들은 서문, 목차 뿐 아니라 서적들의 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제 부분이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되어왔던 반면, 서문과 목차는 다소 남겨진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므로 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 쿠랑에게 한국은 바깥의 것이다. 실제로 텍스트에서는 중국성의 프레임 을 통해 한국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가 활용한 중국성이라는 프레임 역시 구상적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쿠랑이 인식한 한국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동아시아적 총체성 안에서의 한국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동아시아적 총체성을 상정하고, 이의 번역적 형태로서 한국성을 인식한 것이다. 목차에서 한국을 계속 ‘동(쪽)’이라고 지칭한 것도 상대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한국서지> 속에서 한국성을 기술하는 쿠랑의 시각은 그 자체로 혼종적이고 번역적이다. 한국이라는 공간을 프레임화 하고, 이 공간을 다시 중국성의 프레임을 통해 이중적으로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중으로 번역된 한국성이 나타난다. 이는 결국 특정 프레임으로 포착된 구상된 한국의 지형도로 읽혀진다. 서적을 직접 기술하는 방식과 그 맥락을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 시각으로 포착된 조각들이 수집되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가 보다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쿠랑이 한국을 보는 시선을 텍스트별, 시기별로 구분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다.²⁴⁾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자들이 비슷한 시기의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에 작동하는 프레임을 분석해보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어진다면 보다 확장된 형태의 지형도가 그려질 것이다.

24) 이와 같은 시각을 제시한 논문으로 이영미, 「쿠랑이 본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학연구』2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1~32쪽; 프레데릭 블레데릭스, 위의 책, 6~131쪽등이 있다.

참고문헌

-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116>
- 모리스 쿠랑 저 파스칼 그러트 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살림, 2009, 1~350쪽.
프레데릭 블레데릭스, 이향·김정역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1~335쪽.
- Goffman, E, *Framing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Harper&Row, 1974
- 김승우, 「19세기말 프랑스인들의 한국시가 고찰」, 『온지논총』 28권, 온지학회, 2014, 275~311쪽.
- 다니엘 부셰,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랑(上)』, 『동방학지』 51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153~194쪽.
_____,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랑(下)』, 『동방학지』 52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83~121쪽.
-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29권, 2004, 215~247쪽.
- 이상현, 「알렌 <백학선전>영역본 연구 -모리스 쿠랑의 고소설 비평을 통해 본 알렌 고소설영역본의 의미-」,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289~335쪽.
_____, 『삼국사기』에 새겨진 27년 전 서울의 추억-모리스 쿠랑과 한국의 고전세계』, 『국제어문』59, 국제어문학회, 2013, 189~227쪽.
- 이상현·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한국고소설 관련 기술의 근대 학술사적 의미」, 『비교문학』 59권, 한국비교문학회, 2013, 37~74쪽.
-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교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동향」, 『국학연구』 2권, 국학연구소, 2003, 83~221쪽.
- 이희재·이혜은, 「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고서의 현황과 활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45,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235~251쪽.
- 정대영,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eéenne에서 나타나는 고지도 자료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제3권 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63~94쪽.

ABSTRACT

A Study on discursive structure of *Bibliographie Coréenne*, of Maurice Courant

Hwang, In-soon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xamine *Bibliographie Coréenne*, especially focusing on discursive structure. *Bibilographie Coréenn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work of Courant, and of Korean ancient study. The most important work in this research is to reveal how Courant realized the conception of “Korea”. Accordingly, it is significant to reconstruct the perspective and outlook from discursive structure.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ssume the conception of “Korean literature” of Courant by observing the table of content about “Korean literature”.

Hence, I will define the Koreanity in *Bibliographie Coréenne*, as a translated partial characteristic of conception, in regards to the perspective of external describing subject. Therefore, *Bibliographie Coréenne* can be coded not only as a bibliography but kind of topographic map of 19th century’s Korea.

Key Words *Bibliographie Coréenne*, Maurice Courant, Discursive Structure, Koreanity, Frame

논문투고일 : 2014. 11. 10
심사완료일 : 2014. 11. 25
게재확정일 : 2014. 12. 3